환경 지키고 혜택 받는 '녹색아파트' 아시나요

광주시, 내달 23일까지 공모
우수 실적 총 3억여원 제공
오늘·3월14일 사전 설명회

광주시는 공동주택 간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2018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를 공모한다.

올해 9년째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우수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60곳 녹색아파트 참여했더니

음식물쓰레기 평균 28% 감량

온실가스 2989t 감축
소나무 107만 그루 식재 효과

사전 설명회는 23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옛 여성발전센터)와 3월14일 (재)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개최한다.

이후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에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아파트별 맞춤형 컨설팅과 통합교육 등을 제공하고, 아파트 세대별로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아파트 선정은 에너지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분야별 감축 실적에 대해 연말에 종합 평가를 통해 40곳을 선정하고 인센티브 총 3억40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 2곳 3000만원, 최우수 4곳 1500만원, 우수 10곳 1000만원, 장려 24곳 500만원 등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총 60곳이 참여해 온실가스 2989t을 감축, 소나무 묘목 107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부문에 참여한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기기(R-FID)를 설치하는 등 노력으로 평균 28%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송용수 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여름철 광주지역은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광주시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63%에 달해 아파트 주민들이 앞장서서 에너지 저감 노력을 기울이면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년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www.gwangju.go.kr), (재)국제기후환경센터(www.icecgj.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시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11), (재)국제기후환경센터(062-601-1353)로 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평창서 '전라도 방문의 해' 홍보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 3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는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가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강릉 올림픽 파크에서 참가 선수 및 관객들을 대상으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22일 오후 올림픽파크 내 코리아하우스에서 '전라도 정도, 천년'을 주제로 한 기념공연을 갖고 공연에 앞서 강릉역에서 '아트&버스킹 공연'과 강릉 아이스하키 센터 입구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결승전 관람객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라도,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제목의 책자를 배포하기도 했다.

기념공연은 모듬북의 강렬한 비트와 나발의 울림으로 시작을 알리고 이어 수궁가를 신세대의 감성에 맞게 편곡해 연주했으며, 이어 비보이 춤 공연, 마지막에는 올림픽의 정신에 맞게 동·서양화합을 상징하는 비보이와 사물놀이 경연으로 마무리했다.

3개 시·도는 이번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공연을 통해 한류의 본고장인 전라도 문화의 진수를 선보이는 한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라도 방문 붐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박향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예로부터 전라도는 예향, 문향, 의향으로 불리우며 빼어난 예술과 문화 자산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이번 방문의 해를 맞이해 전라도 천년의 예술과 문화를 몸으로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라도 3개 시·도는 3월 1일부터 열리는 국내 최대 관광박람회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공동 참가해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3월 중 관광공사 주관 '한국테마관광 페스티벌'에 참가해 6개국 80여 명의 해외 여행사 및 언론인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가족과 함께 정월대보름
3월1일 빛고을한마당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2018 빛고을정월대보름한마당' 행사를 오는 3월 1일 개최한다. 기원마당, 놀이마당, 공연마당, 나눔마당 등 크게 4마당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박물관은 당산제, 마당밟이 등 전통민속놀이를 기원마당에서 재연할 방침이다. 창작 연날리기에 이어 놀이마당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팔씨름, 투호놀이, 굴렁쇠굴리기, 나뭇짐지기 등 6종목의 경연과 전통민속공연 등 흥겨운 잔치로 꾸며진다. 달이 떠오르면 소원지를 붙인 달집에 불을 지피는 달집태우기와 함께 달집이 타오르는 동안 각자 무술년의 소원을 빌어 흥겨운 강강술래를 펼치며 행사를 마무리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해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진행한 당산제 장면.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제공〉

광주시, 올해 재난 대비 예산 4억여원 투입

광주시는 포항 지진과 밀양 화재 등 갑작스런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재해구호기금 4억1000여 만원을 활용, 다양한 구호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구호사업은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시정 방침을 반영, 재난 발생에 대비한 사전 준비 태세 확립과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재난 발생 대비 사전 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응급복구 지원 실시 ▲응급구호세트 등 재해구호물자 확보 ▲임시주거시설 추가 확충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등을 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 강화 ▲지역자율방재단 구호교육 ▲구호업무 관계자 재해구호 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이재민 구호지원금 1억원을 활용, 재난 발생 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 장사 지원, 심리회복 지원,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 긴급구호를 실시할 계획이다.

응급구호세트 등 재해구호물자는 정기점검을 통해 내구연한 도래, 파손 등 부족분을 사전 파악해 예산 5000만원을 활용, 법정 비축기준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 지정된 임시주거시설 147곳은 이재민 발생 즉시 수용·대피가 가능토록 수시 점검과 함께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신규 건축물을 발굴, 소유자와 협의해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민속박물관대학 '한국의 세계유산' 강좌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유산시리즈Ⅴ-한국의 세계유산'이라는 주제로 제23기 광주민속박물관대학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 '한국의 유산 시리즈'로 진행된 박물관대학은 '문화유산의 이해'(2014), '문화유산으로 본 한국문화'(2015), '문화유산으로 본 지역문화'(2016), '한국의 자연유산'(2017)에 이어 올해 23회째를 맞았다.

이번 강좌는 '한국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진행된다.

한남대 건축학과 한필원 교수의 '세계유산의 보호와 활용방안'을 시작으로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노현균 팀장의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과정',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강문식 연구관의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청주고인쇄박물관 황정하 학예실장의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에 대한 심도있는 강의가 10차례 운영된다.

3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12주에 걸쳐 운영되며 일반시민, 대학생 등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소통참여-통합예약신청)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순 100명을 모집한다.

이번 박물관대학에서는 경북 경주와 경기도 수원 지역 등 2회의 현장답사도 예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미래 먹거리' 광산업 육성 청신호

광융합산업법 국회 산자위 통과

국가 차원에서 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위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광융합산업 진흥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광융합산업 진흥법을 심의하고 법률명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로 조정하는 등 대안을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가 차원의 광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 ▲광융합기술자문기구연구소 지정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등이다.

이날 통과한 법률안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인 광산업의 법·제도·정책적 기반 조성을 위해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22명의 의원이 2016년 공동 발의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는 많지만 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첫 단추를 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이 법률은 광융합산업 진흥법은 광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에너지산업 등을 융복합해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며 " 국가 차원에서 광융합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광산업에 대한 연구, 투자 등이 활발히 이뤄져 지역 광산업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직장여성 육아 궁금증, 고충해결단이 상담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는 광주직장맘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공인노무사, 심리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노동정보 제공 및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을 운영한다.

올해는 운영횟수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 광주직장맘의 고충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먼저 자치구, 지역박람회, 각종행사장에서 종합 상담부스를 운영(30회)하고 교육 및 개별 상담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25회)하는 한편 심리검사와 상담으로 이뤄진 심층상담(20회)도 함께 진행한다.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은 광주직장맘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상담비는 전액 무료다. 상담부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 광주직장맘은 광주시 직장맘지원센터(062-613-7982)로 문의하면 된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해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을 49회 운영하고, 출산 및 육아관련 정보 제공, 대인관계 형성 및 스트레스 상담, 육아휴직 활용 등 모성보호를 위한 노동법률 상담 등 총405건을 진행했다.

/윤현석기자chadol@

투자가치 좋습니다. 010-3605-5000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장기투자 최적**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거문도,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음**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음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